

1. 공자가 살았던 시대

① 춘추(春秋)시대

- B.C. 770-B.C. 481
- 춘추(春秋) : 공자가 쓴 『춘추』에서 유래

② 주(周)나라

- 서주(西周)시대 (B.C. 1046-B.C. 771)
- 동주(東周)시대 (B.C. 770-B.C. 221)
 - 춘추(春秋)시대, 전국(戰國)시대

③ 노(魯)나라

- 주(周)나라 천자의 통치를 받는 제후국
- 주나라 무왕(武王)이 동생인周公旦(周公旦)에게 봉해준 나라, 노나라는 주나라와는 가장 가까운 친족 왕국
- 지리적으로 노나라 수도인 곡부(曲阜) 땅은 주나라 천자가 사는 낙읍(洛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며, 당시의 문화적 중심지
- 주나라 문왕(文王), 무왕(武王) 시대를 이상적인 통치의 시대로 설정한 공자로서는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클 수밖에 없었음

패도를 따르던 제나라의 풍속이 한 번 변하면周公(周公)의 법제를 따랐던 노나라의 문화에 도달하게 되며, 노나라가 한 번 변하면 이상적인 정치를 펼쳤던 선왕의 도에 도달할 것이다.

『논어(論語)』, 「옹야(雍也)」

1. 공자가 살았던 시대

㉠ 노(魯)나라와 공자의 사상

- 노나라의 계보
 - 고공단보(태왕, 古公亶父, 太王) - 계력(季歷) - 문왕(文王 昌) - 무왕(武王) - 성왕(成王)
- 고공단보(태왕, 古公亶父, 太王)
 - 요(堯)임금의 신하 후직(后稷)의 11대 손
 - 기산(岐山)으로 도읍을 옮겨 나라의 기틀을 갖추
 - 고공단보에겐 태백(太伯), 우중(虞仲), 계력(季歷)의 세 아들이 있었고, 그 중 계력이 창(昌, 西伯)을 낳음
 - 고공단보가 손자 창에게 왕위를 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 형제는 떠났고, 결국 창이 이어받아 문왕이 되어 나라를 성장시킴
- B.C.1122년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운 무왕은 그로부터 6년 후 세상을 떠남
- 주공은 무왕이 죽자 어린 조카 희송(姬誦)에게 왕업을 잇게 했는데, 그가 바로 성왕(成王)
- 어린 성왕에게 제국의 경영을 맡길 수 없어 주공이 섭정(攝政)을 함
- 주공은 7년 동안 주나라를 정치적으로 안정시켜 놓은 다음, 성왕(成王)에게 권력을 넘겨줌
 - 주공(周公)은 문왕의 넷째 아들, 무왕의 동생이며, 성왕의 숙부
- 숙부가 조카에게 권력을 넘겨주면서 국가의 기틀을 다짐
- 이런 행동은 권력과 영토를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약탈이 횡행한 춘추 말기를 살았던 공자에게 바람직한 인간과 정치가의 '모델'이 됨

1. 공자가 살았던 시대

③ 주공을 극찬한 공자



주공의 사당(周公廟)
중국 산둥성(山東省) 취푸(曲阜)

- 노나라의 시조라는 자부심
- 노나라의 역사성에 대한 강한 마음
- 유가에 의해 고대 중국의 최고 성인으로 추앙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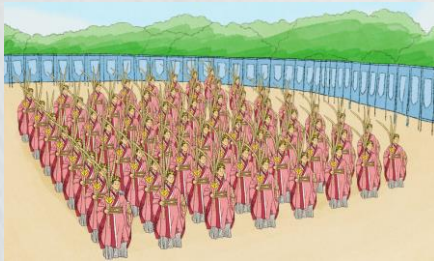
③ 동주(東周)시대의 시작

- 주나라 평왕(平王) 때 견융(犬戎) 오랑캐의 침입
- 수도를 동쪽의 '낙읍(洛邑)'으로 옮김
- 이후 중국은 천자의 실질적 지배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제후국 사이에 가장 세력이 강한 패자를 중심으로 형식상 천자를 받드는 춘추(春秋)시대 시작

1. 공자가 살았던 시대

① 공자가 살았던 시대 상황

- 천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됨
- 노나라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
- 노나라 15대 군주 환공(桓公)의 후손으로 대부(大夫)였던 맹손씨(孟孫氏), 숙손씨(叔孫氏), 계손씨(季孫氏)의 삼환씨(三桓氏) 세력이 커지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었음



무너진 질서에 대한 공자의 탄식

“계씨는 천자의 제사에서만 추도록 되어 있는 팔일무를 자신의 뜰에서 추게 하였으니, 이러한 일조차 감히 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하지 않겠는가?”

『논어(論語)』 「팔일(八佾)」

- 천자만이 가능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었고, 심지어는 노나라 군주[소공]를 외국으로 내몰기까지 함
- 혼란 → 국가 질서의 붕괴 → 전쟁의 연속 → 고통 받는 일반 백성
- 공자가 올바른 예법의 재정립을 주장한 것은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희망과 의지의 소산

2. 공자의 성장과 학습의 과정

① 탄생에서 약관에 이르기까지

- B.C 551 산둥성(山東省) 곡부(曲阜)시 동남쪽 창평향(昌平鄉) 추읍(陬邑)에서 태어남
- 아버지: 숙량홀(叔梁紇)
- 어머니: 안징재(顏徵在)
- 공자의 탄생과 관련해 많은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정확하게 알기 어려움
- 공자의 선조는 원래 송(宋)나라의 귀족, 정치적인 핍박에 의해 사(士)의 지위로 강등되었고 후에 노나라로 도망 → 몰락한 귀족가문 출신
- 3세, 아버지 숙량홀 사망
 -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성장



“부자동(夫子洞)”
공자가 태어난 곳

어린 공자는 항상 제기를 펼쳐놓고 예를 갖추며 놀이를 하였다.

『사기(史記)』, 「공자세가(孔子世家)」

나는 젊었을 때 생활이 가난했고 미천하였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일들을 할 줄 아는 것이 많다.

『논어(論語)』, 「자한(子罕)」

2. 공자의 성장과 학습의 과정

☉ 탄생에서 약관에 이르기까지

- 15세, 지학(志學) - 학문에 뜻을 둠
- 19세, 계관씨(丌官氏)와 결혼
- 20세, 아들 공리(孔鯉) 탄생 - 자는 백어(伯魚)

노나라에서 하급 관리인 위리(委吏), 창고를 주관하는 벼슬을 하였음



2. 공자의 성장과 학습의 과정

① 청년기와 장년기

- 21세, 승전(乘田) 소와 양 등 가축을 관리하는 말단 벼슬

공자가 창고 관리자를 지낼 때 '회계를 마땅하게 할 뿐이다.'라고 했고, 가축 관리자가 되었을 때 '소와 양을 잘 키울 뿐이다.'라고 하였다.

『맹자(孟子)』, 「만장하(萬章下)」

- 24세, 어머니 안징재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와 합장
 처음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

- 공자가 처음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한 시기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음
- 대체로 20대 초반에 사숙을 연 것으로 봄
- 초기의 학생
 - 안회의 부친인 안유(顏由), 증자의 부친 증점(曾點), 염경(冉耕) 등



산동성 취푸에 있는 공자 부모(뒤)와 형(앞)의 묘소

- 27세, 담자(鄒子)에게 고대 관직 제도에 대해 배움
- 30세, 제(齊)나라 경공(景公)과의 만남
 - 제나라 경공이 노나라를 방문했는데, 공자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고 함
- 34세, 주나라 낙읍에서 유학
 - 맹희자(孟僖子)의 도움으로 남궁경숙(南宮敬叔)과 함께 유학
 - 노담(老聃)에게 예를 묻고 장홍(萇弘)에게 음악을 배움

2. 공자의 성장과 학습의 과정

① 청년기와 장년기

- 34세, 주나라 낙읍에서 유학
 - 맹희자(孟喜子)의 도움으로 남궁경숙(南宮敬叔)과 함께 유학
 - 노담(老聃)에게 예(禮)를 묻고 장홍(襄弘)에게 음악을 배움



“공자가 노자를 만나다”
 한(漢)나라 시기의 화상석(畫像石)
 산동성 박물관 소장

‘공자가 노자를 만나다.’

[공자문예어노자]
 [孔子問禮於老子]

공자가 노자에게 예(禮)에 대해 물었다.
 노자의 연대에 대한 의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자가 노자를 만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 35세, 노나라 내란의 발생으로 제나라로 이동

[군군신신 부부자자]
 [君君臣臣 父父子子]

제나라 군주인 경공의 정치에 대한 질문에 “공자가 군주가 군주답고, 신하가 신하다우며,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아들이 아들다워야 한다”고 대답함

『논어(論語)』, 「안연(顔淵)」

2. 공자의 성장과 학습의 과정

① 청년기와 장년기

- 37세, 다시 노나라로 돌아옴
 -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몰두한 시기
 - 스스로 학문에 전념한 시기
- 48세, 계씨의 가신 양호(陽虎)의 권세가 커짐
- 50세, 공산불뉴(公山不狃)가 비(費) 지방을 점거하고 계씨(季氏)에게 반란을 일으킴
 - 공자를 불렀으나 가지 않음
- 51세, 양호가 쫓겨남
 - 중도(中都) 지방의 책임자가 됨
 - 중앙 관직 진출의 발판
- 52세, 노나라의 사구(司寇)
 - 법률을 관장하는 책임자
 - 협곡(夾谷)에서 제나라와 회담을 할 때 공자가 참석하여 제나라의 의도 파악하고 좌절시킴
 - 대부(大夫)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

② 공자는 누구한테 배운 것일까?

[삼인행, 필유아사언]
[三人行, 必有我師焉]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

『논어(論語)』 「술이(述而)」

3. 공자의 꿈, 그리고 천하를 떠돌아다니던 시기

① 주유천하

- 화이부동(和而不同), 대동사회(大同社會)
- 젊은 시절 스스로 학습의 시간을 거치고 현실 정치에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
- 55세, 노(魯)나라를 떠나 위(衛)나라로
 - 공자에 의해 노나라 정치가 잘 되자 제나라에서 경계
 - 제나라의 계책에 노나라 실권자들이 속아 넘어감

제나라 사람들이 노나라에 여인과 악단을 보내주자 계환자가 이를 받고 삼일 동안이나 조회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공자가 노나라를 떠났다.

『논어(論語)』, 「미자(微子)」

- 55세, 위나라에서 원로로서 대접을 받음
 - 위나라에서 공자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려는 의지가 있었던 건 아님
- 55세, 위(衛)나라에서 진(陳)나라로
 - 위(衛)나라에 10개월여 거주 후 진(陳) 나라로 이동
 - 광(匡) 지방을 지나다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포위되어 위협을 당함

문왕이 이미 돌아가시고 예약과 제도가 여기 나에게 있다. 하늘이 장차 이 예약과 제도를 없애고자 한다면 뒤에 태어난 내가 이 예약과 제도에 관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하늘이 이 예약과 제도를 없애고자 하지 않는데 광 지방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논어(論語)』, 「자한(子罕)」

3. 공자의 꿈, 그리고 천하를 떠돌아다니던 시기

① 주유천하

- 56세, 다시 위(衛)나라로
 - 위나라 군주인 영공(靈公)의 부인 남자(南子)를 만남
 - 남자를 만난 것으로 제자 자로(子路)가 의심을 하자 강하게 부정함
- 57세, 노(魯)나라 정공(定公)이 죽고 애공(哀公) 즉위
 - 노나라에 돌아옴
- 59세, 노나라를 떠나 다시 위나라로
 - 위나라 군주인 영공(靈公)이 진법에 대해 질문
 - 공자는 이를 거절하고 위나라를 떠남
- 60세, 위(衛)나라를 떠나 조(曹)나라를 거쳐 송(宋)나라로 감
 - 송나라로 가는 도중 사마환퇴(司馬桓魋)가 공자를 죽이고자 함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었는데 환퇴와 같은 자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환퇴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논어(論語)』 「술이(述而)」

3. 공자의 꿈, 그리고 천하를 떠돌아다니던 시기

① 주유천하

- 60세, 정(鄭)나라를 지나 진(陳)나라로
 - 정나라에서 제자들과 헤어져 길을 잃음



[상가지구]
[喪家之狗]

동문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풀 죽은 모습이 마치 집 잃은 개와 같았습니다.

『사기(史記)』, 「공자세가(孔子世家)」

- 62세, 필힐(佛髫)이 중모(中牟) 지방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킴
 - 필힐이 공자를 부르니, 공자가 가려고 하다 가지 않음



공자가 필힐에게 가려고 하자 자로가

“예전에 제가 선생님께 ‘자기 자신에게 좋지 못한 일을 자신이 직접 하는 사람에게 군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라고 들었습니다. 필힐이 중모 지방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선생님께서 가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논어(論語)』 「양화(陽貨)」

3. 공자의 꿈, 그리고 천하를 떠돌아다니던 시기

① 주유천하

- 63세, 재진절량(在陳絕糧)
 - 초나라로 가는 도중 진(陳)나라와 채(蔡)나라 사이에서 식량이 떨어져서 고생함
- 67세, 위나라에 머무
- 68세, 제자 염유(冉有)가 계씨의 가신이 되어 귀국
 - 염유가 제나라와의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
 - 스승인 공자가 노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군주에게 요청
- 69세, 염유의 소망에 따라 애공이 공자가 노나라로 돌아오도록 함
 - 염유
 - 애증이 교차되는 제자
 - 정치를 잘 했지만 계씨의 가신이 됨
 - 훌륭한 제자였으나 공자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내용이 적지 않음
- 70세, 제자 안회 사망
 - 당시 32세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내가 안회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 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하여 애통해 하겠느냐.”

『논어(論語)』 「선진(先進)」

3. 공자의 꿈, 그리고 천하를 떠돌아다니던 시기

① 주유천하

- 70세, 교육과 문헌정리에 몰두
 - 『시경(詩經)』, 『서경(書經)』 정리
 - 예(禮), 악(樂)을 지도
 - 약 3000명의 제자를 둠
- 72세, 제자 자로가 위나라 내란에 휘말려 죽음



“자로는 가르침을 듣고서 아직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에는 오직 또 다른 가르침을 들을까 두려워하였다.”

『논어(論語)』 「공야장(公冶長)」

공자의 가르침에 대한 절대적인 신봉자인 자로의 죽음은 노년의 공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

- 73세, 공자의 사망

“하늘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구나. 이 노인 한 사람마저 나에게 남겨주지 않다니. 나를 도와 군주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도다. 외로운 나는 병중에 있는 듯하다. 아아! 슬프구나! 공자여! 나는 어찌 할 줄을 모르겠구나!”

- 노나라 군주 ‘애공’의 조사

3. 공자의 꿈, 그리고 천하를 떠돌아다니던 시기

☉ 공자의 죽음



공자의 묘지석

-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

- 크게 모든 것을 이루었고
- 지극한 성인이며
- 문장을 천하에 펼쳤던
- 왕, 소왕(素王)



자공이 움막을 짓고
3년상을 보낸 곳

- 자공

- 외교술과 언변이 뛰어남
- 거상으로 부를 축적
- 공자 교단의 후견인
- 공자의 3년 상을 두 번 치른 제자